

■ “메구미 남편은 납북된 김영남씨”

베일벗은 메구미 사건

“北 책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납북자단체, 김영남씨 조속한 송환 촉구

일본 외무성이 11일 DNA 감식 결과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은 1978년 8월 납북된 남한 고교생 김영남이라고 통보해 오자 납북자 단체들은 “납북문제에 관해 북측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구미의 남편이 납북 고교생이라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11일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납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선 김씨 가족과 협의를 통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본 외무성의 DNA 조사 결과를 곧바로 전 북 전주시에 살고 있는 김씨 가족에게 통보한 뒤 외부와 접촉을 피하며 추후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허운 피랍탈북인권연대 사

무총장은 “이제 납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통일부를 방문해 이종석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사무총장은 “김영남씨의 생사가 확인된 만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탈북해경양도 국적법에 따라 남한 주민이 확인된 만큼 하루 빨리 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오면 계란 삶아주고 싶어”

■ 김씨 어머니 28년 恨 절구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으로 확인된 김영남씨 모친인 최계월(82)씨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빨리 아들을 만나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딸 영자(48)씨의 부축을 받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회견장에 들어선 최씨는 북한에 사는 아들의 처지를 염려한 듯 말을 아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당주동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북한에 살아 있다니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면서

“(북한이) 보내주면 같이 살아야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는 또 “영남이가 돌아오면 좋아하는 (계란을) 후라이도 하고 삶아도 주고 싶다”면서 “손녀 딸(김혜경)도 살아 있다니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최씨는 “영남이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다”면서 “몇달 뒤에 무당을 데려다 굿도 하고 제사도 지냈다”고 말했다.

누나 김영자씨는 “이제 영남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에 있는 동생이 나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



납북자 김영남씨의 어머니 최계월씨가 12일 서울 뉴라이트 전국연합 강당에서 북한 정부의 사과와 함께 모든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작은 사진은 납북 당시 김영남씨.

■ 요코다 메구미 사건이란

지난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중학 1년생 요코다 메구미(당시 13세)가 실종된 사건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상징적 사건이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귀순한 북한 공작원 안영진씨가 일본의 한 강연회에서 “70년대 후반 13세 소녀가 일본에서 납치됐다”

는 증언을 하면서 20년 만에 사회 이슈화가 됐다.

메구미씨는 북한에서 ‘류명숙’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납북 당해 ‘김철준’이란 이름을 쓰는 김영남씨와 86년에 결혼, 딸 김혜경(18)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메구미씨가 병원 입원 중 자살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사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북한은 요코다의 유골이라며 가족들에게 뼈를 보냈으나 일본 정부는 DNA 감식결과 가짜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방사능 우라늄 농축 성공”

美 “이란 잘못된 길 가고 있다...안보리 논의” 경고

미국에서 대 이란 군사공격 준비 경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이란은 11일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고 전격 선언, 이란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핵기술 보유 선언에 미국은 이란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 다음 단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란의 발표에 국제 위기에 안전통화도 간주되는 스위스 프랑화가 오르고, 유가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른 것도 이란 충격이 한 요인이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발표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란이 유연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날 북서부 성도 마샤드에서 군수부와 성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실현될 수준의 핵연료 사이클이 완성돼 핵발전소에 필요한 정도의 우라늄을 생산함으로써 이란이 핵국가 클럽에 가입했음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용 규모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도록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을 정부 관계자들

에게 촉구하고 “서방은 이란의 핵농축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이란인의 가슴에 증오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나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권리와 규제 안에서” 핵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란 핵에너지기구 의장인 골람 레자 아가자데 부통령은 “우리는 지난 9일 순도 우라늄 가스를 110t 생산, 3.5%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며 연말까지 원심분리기를 3000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 행위”로 “이란 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란이 이러한 노선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안보리 회원국 및 독일과 가능한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이란에 “향후 30일 안에”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이란은 안보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최진민기자 man21@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11일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발전연료용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갈때 가더라도 “에라! 쉬었다 가지” 11일 제21회 사하라 마라톤에 참가한 모로코인들이 쉬는 도중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회는 19세부터 71세까지 32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7일에 걸쳐 230km의 사막을 횡단하는 긴 일정에 참여한다.

伊 전설적 마피아 대부 43년 도피 끝 체포돼



전설적인 마피아 조직의 최고거물 베르나르도 프로벤자노(73·사진)가 마침내 체포됐다고 11일 이탈리아 TV 방송들이 보도했다.

현지 TV방송은 그가 이탈리아 마피아의 본거지인 남부 시칠리아섬의 레온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프로벤자노는 지난 43년간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면서도 조직을 이끌어 얼굴없는 ‘보스’로 불리는 인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미 종신형이 선고된 인물이었으나 경찰은 48년전의 사진밖에 갖고 있지 체포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힐 “北, 6자회담 조속 복귀 기대 안해”

도쿄대학 성과없이 종료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6자회담 관련국

관리들과 만난 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있다는 징후가 없다면 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도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도쿄시내 미타하우스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 휴식시간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교도통신이 회담 참가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신은 힐 차관보가 김 부상에 게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촉구하고, 김 부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실현되려면 “바위가 제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김 부상이 말한 ‘바위’는 미국이 돈세탁 및 탈러위조와 관련해 부과한 제재조치를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당선확신!!' (Winning Certainty!!) featuring a man's portrait and text about political campaigns.

Advertisement for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We rent modern facilities at low prices) for a company named '연우상사'.

Advertisement for '당양한과' (Dangyang Fruit) featuring images of various fruit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삼보전기온플랜빌' (Sambo Electric Plan Building) and '삼우상사' (Samwoo Sangsa) with a map and contact information.